

# 민주·대안신당 “안철수에 두번 안 당한다...환상 버려라”

## 광주 방문 바라보는 광주·전남 정치권 반응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 이후 첫 행보로 광주를 찾은 데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안 전 의원이 과거 지지 기반이었던 호남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됐다.

하지만, 안 전 의원의 이날 메시지는 과거 자신을 대권주자로 키워주고 국민의당 돌풍을 일으키게 도와줬던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호남의 지지자들에게 대한 ‘사과’였다. 그리고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드는 데 힘을 쏟고, 이를 위해 많은 국민들을 만나겠다고 밝힌 게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지역 정치권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안 전 의원은 이날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한 뒤 향후 정치적 행보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 내의 많은 분을 만나고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함께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실용적 중도정당을 만드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한 ‘제3세대 통합’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노선과 방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노선과 방향이 맞다면 많은 분들의 힘을 구하겠다”면서 “(정치적)이합집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방향을 말씀드리기 위해 귀국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제3세대 통

안 “노선과 방향이 가장 중요”

호남 3세대 통합 가능성 열어둬

민주·대안신당, 반성·사과 촉구

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21대 총선을 위한 정치적인 합종연횡은 없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 전 의원은 우선 바른미래당 호남의원들과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세력 확장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답판을 짓는 게 중요하지만, 우선은 20대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렀던 바른미래당 현역 의원들과 함께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날 안 전 대표의 광주행에 바른미래당 호남의원들과 비례대표 의원들이 참석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반면, 안 전 의원의 이날 광주 방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안신당 측은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시당 위원장은 “4년 전 중도 개혁으로 호남의 큰 지지를 받았는데, 이를 다시 반복하는 것에 호남이 다시 신뢰를 보낼지 의문이다”며 “이후 당이 사분오열되고 호남 정치가 힘을 잃어버린 점에 대해 지역민에게 반성과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평가절하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20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분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형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0대 총선 때 같은 동지였던 대안신당마저도 ‘금의환향이 아닌 돌아온 탕자일 뿐이다’라고 맹비난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아직도 광주와 호남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면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도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복귀, 5·18 민주묘지 참배에 대한 호남 여론은 냉소적이다. ‘쇼타임’ 식의 정치행보로 돌아설 여론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대안신당은 연대와 통합의 정치를 추구한다”며 “지난날 안철수식의 ‘나 홀로 정치’는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광주 시민들이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지 않겠다. 저도 이번 주말 광주에 있었는데, (안 전 의원을 향한 민심은) ‘아니올시다’이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손학규 “안철수 정치복귀 환영...곧 연락할 것”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0일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한 안철수 전 의원을 향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를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1년 4개월간 해외에서 생활의 시간을 가진 안 전 의원이 미래전선을 제시하면서 실용적 중도정치를 지향한다고 한 것에 적극 환영한다”며 “이런 철학이야말로 제가 그동안 솔한 모델 속에서 당을 지켜온 가치”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안 전 의원에게 만나지는 제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만나자고) 했다. 오늘 현충원과 광주·여수에 갔다가 온다니 그 후 (안 전 의원이) 연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 전 대표 측에서 ‘손학규 퇴진’을 요구한다면 사퇴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손 대표는 안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에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5·18 진상조사위 국회 방문...조사활동 지속적 협조 당부

###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만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가 국회를 방문해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한 국회차원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20일 5·18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송선대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일동이 국회를 방문해 5·18진상조사위 출범에 협조해 준 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5·18진상조사위의 조사활동에 국회차원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본격적인 진실 규명 활동에 앞서 국회, 여야 각 정당의 관심을 끌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5·18진상조사위의 출범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5·18진상조사위의 철저한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과거사를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와 통합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위원회의 활동을 격려했다.



20일 오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송선대 위원장·안중철 부위원장·이종협 상임위원이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18조사를 통해 진실을 알리고 더 이상 왜곡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출발이 늦었지만 충실한 조사를 해달라”며 당차원의 관심과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5·18진상조사위는 21일 오전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 오후에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위원회 조사활동에 대한 각 정당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 문 대통령·정총리 첫 주례회동...경제·규제혁신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오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경제활력 제고 방안과 사회적 대화, 협치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때까지 주례회동은 비공개로 원칙으로 했음에도 이날 회동결과는 언론에 공개했다는 점에서 정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국정을 끌고 나가는 데에 힘을 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와 관련하여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규제적인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부’를 국정운영의 주요점으로 삼고,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치 모델인 ‘목요 대화’를 운영하며 경제·노동·정계 등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대화를 나눌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목요대화’가 새로운 협치와 소통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새해 들어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반등하는 징후들이 보인다”며 “수출 호조가 눈에 띄고, 위축됐던 경제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긍정적 흐름을 적극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비자심리지수가 2개월 연속 기준값 100을 넘어 경제회복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기업·소비자의 심리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며 “실물경제의 바로미터가 되는 주식시장이 살아나는 것도 우리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민생안전과 서민지원 등 이미 발표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등이 동반됩니다.

###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히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